

# 학술 논문에 나타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인식에 관한 내용분석

## A Content Analysis on Perceptions of Community Archives in Journal Articles

유 송 지 (SongJi Yu)\*

이 수 상 (SooSang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4. 분석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
| 3. 연구방법   |         |

###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의 개념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이론적 정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community archive”, “민간 아카이브”, “시민 아카이브” 등 다섯 개의 키워드를 활용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국내 학술논문 64편을 수집하였으며, 그 안에 포함된 공동체 아카이브 국내 사례 57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R1을 활용하여 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는 사례에 대한 정의,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 운영 주체, 기록물 유형, 기록물 수집 방법, 기록물 레코드 구축 방법, 기록정보서비스의 측면에서 공통적 특성과 유형적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내용적 특성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mmunity archives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ir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South Korean cases. Using five keywords—“공동체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community archive,” “민간 아카이브,” and “시민 아카이브”—a total of 64 Korean journal articles were retrieved via the academic information system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From these, 57 relevant cases were selected for final analysis. Using the qualitative analysis tool NVivo R1, the study found that Korean community archives exhibit common characteristics and typological tendencies in several aspects: definitions of the cases, operation status of digital archive, the operating entity, types and methods of record collection, methods of record construction, and archival reference service. Through this case-based analysis, the study offers academic significance by categorizing their content-related characteristics.

키워드: 공동체 아카이브, 민간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내용분석, 질적분석

Community Archive, Citizen Archive, Digital Arch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zxcvbnm7198@naver.com / ISNI 0000 0005 2802 0764)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slee@pusan.ac.kr / ISNI 0000 0000 6434 9851)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5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8월 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3): 89-115,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3.089>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기록학계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가 새로운 기록 실천의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공공기록과 달리,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아카이브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 민간 아카이브는 기업, 대학, 종교 단체, 병원, 노동조합, 스포츠 단체 등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설치·운영하는 아카이브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도 특정 공동체가 그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압축해 담은 자료를 보존하는 민간 아카이브에 포함된다(현문수, 2013).

마을아카이브, 시민 아카이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공기록 중심의 기존 주류 아카이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사회 집단의 기록을 포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주로 공공기록이 담지 못했던 소외된 사회 집단의 이야기를 기록화함으로써 역사적 배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24). 그러나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관리법의 예외로 공적 관리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록관리의 공론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의의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배제되는 경향이 존재했다(배현숙,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록을 수집, 평

가,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기억이 자기 정체성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듯, 집단 기억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설문원, 김영, 2016). 이처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는 공동체 내부의 가치와 해석을 반영하고, 주류 기록에서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개념과 특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과 내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를 실제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운영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설문원, 김영, 2016).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에게 아카이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해당 아카이브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학술 논문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선정해서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내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각 공동체가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어떠한 구체

적인 내용적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초기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향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실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선행연구

마을아카이브, 시민 아카이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공기록 중심의 기존 주류 아카이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에 기존의 아카이브 패러다임이 공동체 아카이브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초기 논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8년 마을아카이브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연구로 이어졌다.

이영남(2008)은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를 한 마을의 중심적 위치에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는 일종의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마을아르페는 마을도서관,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윤은하(2012)는 공동체가 기록과 아카이브를 통해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공

동체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을 구조화시키고 드러내는 장소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단순히 민간 영역으로의 관심 이동을 넘어, 기록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운동의 성격을 내포하며 기록관리 담론이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미시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 전체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한 가치임을 밝혔다.

설문원(2012)은 선진국에 비해 지역기록 보존에 대한 인식이 아직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은 국내 환경에서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발굴 가능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초기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실제 사례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최운진(2011)과 김화경(2012)은 각각 성미산 마을아카이브와 부산 산복도로 마을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아카이빙 단계 이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카이빙 수집 전략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점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면서, 아카이브 활동의 주체가 정부기관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공동체 자체의 기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조영삼(2016), 배현숙(2018), 손동유(2020)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국내 공동체들이 아카이브에 대

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여 공동체들이 독자적으로 아카이브를 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협력을 통해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상호협력적인 방식을 통해 공공 기록과는 다른 민간 기록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기본적인 이론에서 기록 관리 방법론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기록평가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 아카이브에 적합한 평가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설문원과 김영(2016)은 기존 기록평가론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고유한 가치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핵심 원칙인 '참여'를 강조하며, 공동체가 평가의 주체가 되거나 공동체의 인식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참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 평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결정자들이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공동체는 상향식으로, 주류 기관의 아키비스트는 하향식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선별 및 가치 부여를 진행하여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형 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김우희(2020)는 지역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콘텐츠 운영 및 활용 방안 연구를 위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였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규정하는 장소이자 그 가치를 관리, 보존, 유통시키는 장소라고 제시하며,

이 점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구성원들과 외부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기록정보콘텐츠는 관리기관과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양방향 기록정보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공동체 아카이브는 참여형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용국(2016)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단순한 기록저장소가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 복원, 공동체 재생 및 발전을 위한 교류의 공간 혹은 기회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기록 차원이 아닌 인간 공동체 구성 및 발전 측면에서 접근한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기획, 수집·기록화, 활용, 평가 총 4단계로 구성되었고, 이를 부산 동구 산복도로 아카이브에 적용하여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점차 인식함에 따라 아카이브의 대상과 형태가 다방면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은지(2018)는 소외되고 잊힌 여성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아카이브 중에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기록사업을 분석하였다. 여성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기록이 생산된 사례이지만 기록 보존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해 기록의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하였다.

서우석과 김민재(2021)는 경기아카이브 전시와 성북도큐멘타 전시 사례를 통해 아카이브 예술이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와 접목된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아카이브 예술이 지역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소멸 위기에 처한 장소

에 대한 기억과 관심을 불러일으켜 지역의 생존을 위한 장소적 특성을 살리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공동체의 기억을 효과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 가능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박진경과 김유승(2017), 김조은(2020)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들은 집단 기억과 구분되는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 기억인 사회적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용어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형태로 등장하여 다양한 공동체가 스스로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디지털 기술로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기록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기억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공동체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기록학계에서는 보존된 기록을 활용하고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할지에 관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백지원과 오효정(2024)은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자가 찾는 기록을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잠재적 이용자에게 소장기록과 보존기록을 알리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편리함과 동시에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이러한 사회에서 소외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원(2008)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을 검

색 및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특히 검색 및 열람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부가가치 서비스는 기록의 가공, 해석 등의 작업을 통해 콘텐츠, 전시물 등을 제공하여 검색 및 열람을 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기록관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별 목적을 제시하며, 기록관리기관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동체 아카이브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주로 평가론이나 공동체 아카이브의 표면적인 특징을 다루고 있었다. 이에 아카이브의 ‘내용적’ 특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 중 특정 지역 또는 주제 아카이브의 특성과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아카이브 구축 방향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이정연과 최효진(2020)은 제주학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운영 조직, 기록관리, 아카이브 구성 및 서비스, 아카이브 시스템을 범주로 잡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인호(2023)는 제16대 대통령기록 중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자료를 대상으로 연역적·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기록 철·건’, ‘기록 건’을 중심으로 생산시스템 유형, 보존기간 및 책정 사유, 입수유형, 기록 형태 등의 항목을 분석하여 대통령 기록관리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운영체제에 중점으로 두고 있어 분석 대상이나 초점은 본 연구와 다르지만, 특

정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분석 방식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분석 방식에 근거하여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의 개념

현대 사회에서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록을 생산하는 개인 및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기존 공공기록 관리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2000년대 후반에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배현숙, 2018). 논의가 늦게 이루어진 만큼,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과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 개념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자체에 대한 정의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동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록학계에서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공동체 현상을 공통의 기록과 기억을 소유한 사람들, 즉 “기억 공

동체”로 범주화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억 공동체로서의 공동체도 개념적 범위가 넓다. 좁게는 혈연에 기반하여 형성될 수도 있지만, 넓게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성 및 유지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공동체인 경우가 많다(설문원, 김영, 2016).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독서 동아리, 마을 주민들의 모임, 동물 보호 단체, 성소수자 단체, 탈북민들의 모임 등 다양한 형태들도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들은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와 같은 여러 유형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마을이나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와 같이 ‘마을’ 또는 ‘지역 공동체’의 범위에 속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민간 아카이브의 유형도 존재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아카이브 개념을 정리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영남(2008)은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라는 마을기록관(마을아카이브), 마을역사관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 마을의 중심 공간으로서 개인과 마을의 문화적 토양을 가꾸는 ‘복합문화공간’ 또는 ‘커뮤니티 센터’로 정의하였다.

설문원과 김영(2016)은 공동체를 구성원들이 귀속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유지되는 집단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공동체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이자 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자원이며,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윤은하(2012)는 공동체를 '기억 공동체'로 바라보며, 공동체 아카이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억을 구조화하고 드러내는 장소라고 정의하였다.

지역공동체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설문원, 2012)로, 지역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나누고 규정하는 장소이자 그 가치를 관리하고 보존하며 유통시키는 장소가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라고 정의하였다(윤은하, 2012).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이다. 이들의 활동은 공론장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필요로 한다. 아직은 관련된 논의가 거의 없지만, 특정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활동하는 집단(클럽)인 동아리 아카이브도 공동체 아카이브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처럼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운동의 성격을 내포하며, 단순한 민간 영역으로의 관심 이동을 넘어선 목적을 가진다. 이는 중앙 집권적 관리 방식인 '위에서 아래로'의 기록 관리 담론에서 벗어나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미시적 관점으로서의 전환 시도였다. 따라서 기록 관리는 사회 전체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의 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을 아카이브,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시민사회단체 아카이브 등을 포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들은 비록 대상 기록의 특성이나 지향점,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모두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며 각 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형성된다는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체가 직접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공공기관 등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아카이빙을 수행하는 경우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기록과 관련된 활동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범주에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2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 특성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존의 국가 및 기관 중심의 공공 아카이브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들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 특성은 크게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의 기억 보존 및 정체성 형성, 아카이브의 사회적 가치,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발전, 활용과 같이 총 5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공동체의 주체적인 참여이다. 기존 국가기관이나 전문 아키비스트 등 공적 주체보다는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아카이브와 차별화된다. 많은 연구들이 공동체가 스스로 기록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문원과 김영(2016)도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참여'가 핵심 원칙이며, 공동체의 평가의 주체가 되거나 그 인식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활동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단순히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의 장임을 의미한다.

둘째,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기억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다지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윤은하(2012)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고유한 서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기억을 형성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적 자산을 남기는 역할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경험과 역사가 담긴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기존 공공 아카이브에서 소외되었던 비주류적인 기록이나 일상적인 기록들을 찾아 보존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민간 기록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공동체 발전

의 동력이 될 수 있다(김우희, 2020). 공동체 아카이브는 소외되었거나 비주류적인 기록들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기록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공동체 아카이브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형태를 비롯한 기능도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가 주목받고 있다. 공동체 디지털 아카이브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기록의 수집, 공유, 접근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더욱 촉진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특정 관계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공통적 기억인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박진경, 김우승, 2017).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담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가 최근 사회에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의 보존을 넘어 활용을 핵심적인 특성으로 내재하고 있다. 아카이브에 축적된 기록은 공동체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들에게 개방되고 활용될 때 그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보존된 기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록보존소를 넘어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김우희(2020)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용이 단순히 기록 열람을 넘어,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확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김

은지(2018)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기록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기억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함으로써 활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보존된 기록이 공동체와 사회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주체성, 기억과 정체성 형성 기능, 아카이브의 사회적 가치, 디지털 아카이브로 발전 그리고 활용이라는 5가지 주요 특성을 내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내용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례는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를 의미하며, 현상이나 사회적인 단일체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연구에 사용된다(유기웅 외, 2018). 이에 실제로 운영되었고,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가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한 분석 대상이라고 선정하였다. 사례들을 선정한 후, 이들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현황 및 인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검색 시스템에 “공동체 아카이브”, “커뮤니

티 아카이브”, “community archive”, “민간 아카이브”, “시민 아카이브” 5가지 검색어를 활용하여 공동체 아카이브 관련 국내 학술논문 총 88건을 검색하였고, 여기서 제목과 초록 중심으로 연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논문을 걸러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23건을 제외하고 65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논문에 포함된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는 중복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57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57건 사례는 다음 <표 1>과 같다.

####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7개의 범주를 사전에 설정하는 역역적인 방식을 취한 후,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하위 내용을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범주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의(논문 내/디지털 아카이브 내),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 운영 주체, 기록물 유형, 기록물 수집 방법, 기록물 레코드 구축 방법, 기록정보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운영할 때 필요한 과정이자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의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정한 사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각 사례의 내용을 범주별로 분류하여 Excel에 정리하였다. 논문만으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에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때, 각 범주마다 참고한 범위가 다르기에 다음 <표 2>에 정확한 범위를 명시하였다. ‘O’가 표시된 경우는

〈표 1〉 분석 대상 아카이브

연번	사례명	연번	사례명
1	민주화운동아카이브	30	리포트래시
2	성북 마을아카이브	31	동탄 신도시 아카이브(제안서)
3	성미산 마을아카이브	32	평택시 생애사 아카이브
4	퀴어락아카이브	33	민족과 여성 역사관
5	카라아카이브	34	서울시장 집무실 아카이브(제안서)
6	서울 동춘동 아카이브	35	해방촌 마을아카이브
7	4·16 기억저장소	36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8	경기도메모리	37	강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9	향토·개항문화자료관	38	대구 남구도시기억도큐멘타
10	계남 마을기록관	39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기록사업
11	1997 위환위기 아카이브	40	여성아카이브(제안서)
12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41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디지털 아카이브
13	서태지아카이브	42	우리학교 역사의 벽 함께 만들기
14	아이큐아카이브	43	반연목교육박물관
15	소리아카이브	44	우애의 아카이브
16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45	경기아카이브
17	금천구 공동체경제기록관	46	과주아카이브
18	PNU로컬리티아카이브	47	느티나무 도서관 아카이브
19	진해군항 마을아카이브	48	대천 마을아카이브
20	돈의돈 박물관 마을	49	화성시 시민소통아카이브
21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마을	50	청주동네기록관
22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51	한국계이민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3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생활사 아카이브	52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24	대구 약전골목 아카이브(제안서)	53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등
25	풀무 컬렉션	54	마포 문화비축기지
26	은평 마을아카이브	55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
27	문래아트아카이브	56	제천 간디학교 아카이브(제안서)
28	정릉 마을아카이브	57	대구 북성로 공구박물관
29	도시재생아카이브		

〈표 2〉 범주별 사용한 데이터 소스

범주	범주 내용	논문	아카이브
1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의	○	○
2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	X	○
3	운영 주체	○	△
4	기록물 유형	○	△
5	기록물 수집 방법	○	X
6	기록물 레코드 구축 방법	○	X
7	기록정보서비스	○	X

논문이나 아카이브 데이터가 주류 데이터로 사용되어 분석된 것을 말하며, 반면 'X'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논문의 내용으로는 각 범주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아카이브·웹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Excel에 정리된 내용을 내용적 특성의 데이터로 확보한 후, 상향식의 개방형 코딩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개방형 코딩 방법은 수집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료에서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하여, 개념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키는 작업이다. 이에 사전에 정해둔 범주에 맞춰서 내용적 특성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면 단어, 구절, 문장 단위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코딩을 하였다. 단어 단위만으로는 전체 맥락 속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각 범주에 해당하는 코드가 유사한 경우 범주와 관련된 가장 상위 개념으로 수렴하였다. 대표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의 부분을 살펴보면, '기억 보존'에 해당하는 코드는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혹은 '기억 보관' 등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은 질적 분석 도구인 NVivo R1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 도구는 수집된 텍스트와 이미지 자료의 정보를 조직·분류·검색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이점이 있다(Creswell & Creswell, 2018). 이 중에서 NVivo는 텍스트화된 자료를 단어, 구절, 문장 단위로 개별 코딩함으로써 범주를 형성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이연옥 외, 2012). 이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신빙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도구이기에,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 과정은 질적 연구의 한 부분으로 연구자의 견해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통해 수정 및 명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적 논의를 제시하는 질적 연구로서 방법론적인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석효봉, 2015).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는 여러 관점에서 봐도 연구의 결과물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Creswell & Creswell(2022)의 연구에서 제시한 동료보고(peer debriefing)를 활용하였다. 이는 일주일마다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진행사항에 대해 토의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삼각검증을 통해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삼각검증은 “동일한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의 조합”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출처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호비교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김동희, 2023). 삼각검증에 의거해서 논문 및 디지털 아카이브(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연구에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 정의

각각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정의한 내용을 보면, 아카이브마다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담겨있다. 이에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는 각 사례에 대한 논문 내 서술과 해당 사례가 실제로 운영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내의 정의를 기준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정의에 내포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총 11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사례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기에, 중복 분류를 적용하였다.

'기억 보존'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구성원들은 잊히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과거의 경험,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실천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사례로는 사라지는 고향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방법으로 기록을 시작한 사례인 '서울 둔촌동 주공아파트'와 동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억을 주민 주도로 기록·보존한 '청주동네기록관'이 될 수 있다.

'도시 재생'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마을 또는 도시 공간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면 '도시재생'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기억'은 특정 공동체를 넘어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기록 활동에 적용한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4.16 기억저장소'가 여기에 속한다.

'소통'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 공동체 내부의 대화

를 활성화하는 장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천구 공동체 경제기록관'은 마을 주민들이 기록을 통해서 소통함으로써 치유와 새로운 희망을 찾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사례이기에 '소통'으로 분류하였다.

'시민 참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기록 활동의 주체가 되어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은평 마을아카이브' 사례의 경우에는 은퇴한 직장인들을 마을 아키비스트의 자격으로 공동체에 참여 및 기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에 속한다.

'역사 보존'은 '기억 보존'과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공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을 쌓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적인 역사적 사실인 1997년 위환위기를 대상으로 기록을 모은 아카이브인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가 해당된다.

'인권 보호'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 '인권 보호'로 분류하였다.

'액티비즘'은 억압받은 집단, 주변부의 커뮤니티, 사회 운동 등과 관련된 목소리를 기록으로 보존함으로써, 기록이 행동과 실천의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 아카이브인 '카라 아카이브'가 속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나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타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협력'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기록관리

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 아키비스트, 기록 관련 기관 등 전문가나 기관과의 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체성’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도시재생아카이브’와 같이 주민이 직접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구성된 사례가 포함된다.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나 아카이브 내 정의 부문에서 제안서라고 한 경우에도 ‘없음’이라고 분류하였다.

우선, 사례에 대한 정의를 논문 내외 아카이브 내의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여 살펴본 결과, ‘기억 보존’을 내포하고 있는 정의가 36건(24.0%)으로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정의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28건(18.7%), ‘역사 보존’을 담은 정의가 25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논문 내에서는 ‘기억 보존’을 담고 있는 정의가 17건(21.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역사 보존’이 16

건(19.8%), ‘정체성’이 13건(16.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아카이브 내에서는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26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억 보존’이 19건(27.5%)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외의 항목들은 모두 10건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기억 보존’이 가장 높은 수치이고, 다음으로는 ‘역사 보존’, ‘정체성’,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기억을 보존하고자 구축된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많음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 4.2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

각 사례의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 조사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및 사이트의 유무가 중요하기에 논문을 참고하지 않았으며, 질적 분석 또한 수행하지

〈표 3〉 사례별 공동체 아카이브 개념

구분	기억 보존	도시 재생	사회적 기억	소통	시민 참여	역사 보존	인권 보호	액티비즘	전문가 협력	정체성	없음	소계	계
논문	17	2	1	8	10	16	5	1	6	13	2	81	81
	21.0%	2.5%	1.2%	9.9%	12.3%	19.8%	6.2%	1.2%	7.4%	16.0%	2.5%	100%	54.0%
아카이브	19	1	1	0	2	9	5	0	1	5	26	69	69
	27.5%	1.4%	1.4%		2.9%	13.0%	7.2%		1.4%	7.2%	37.7%	100%	46.0%
계	36	3	2	8	12	25	10	1	7	18	28	150	150
	24.0%	2.0%	1.3%	5.3%	8.0%	16.7%	6.7%	0.7%	4.7%	12.0%	18.7%	100%	100%

않았다.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는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O',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X', '웹 사이트'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원자료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가공하거나 해석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하였다.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후 접근·활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곳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았다.

사례 중에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속한다. 이는 서울역사박물관 아카이브의 한 분야로, 서울 구역별·연도별 생활문화 기록(사진, 도면,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축적하고 자료에 메타데이터와 기술을 부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웹 사이트는 원자료의 지속적 축적보다는, 이미 가공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자료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에 분류하였다. 주로 단일 주체가 생산한 콘텐츠를 최신성에 맞추어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장기적 보존보다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가진 곳을 웹 사이트로 보았다. 사례 중에서는 '우애의 아카이브'가 있다. 탈시설 자립생활운동에 관한 정보를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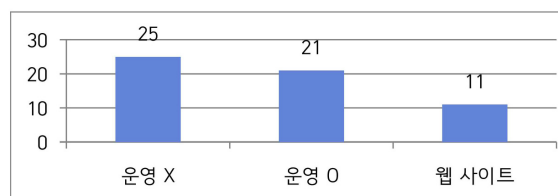
제공하고, 이를 알리며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둔 곳으로, 원자료의 축적·보존보다는 가공된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웹 사이트에 해당하는 사례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제안하고 있는 사례 5건과 기준에는 운영했지만 지금 운영하지 않는 사례도 현재 기점으로 실존하지 않은 아카이브이므로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X'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총 57건의 사례 중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가 21건,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25건, 웹 사이트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11건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경우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4.3 운영 주체

공동체 아카이브의 운영 주체에 대한 분석은 해당 아카이브가 실제로 어떤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운영 주체를 크게 단독 주체와 공동 주체 구분하였으며, 이 외에 운영 주



〈그림 1〉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

〈표 4〉 운영 여부별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

구분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O(21건)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X(25건)	웹 사이트(11건)
민주화운동아카이브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우애의 아카이브
성북 마을아카이브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의 생활사 아카이브	경기아카이브
성미산 마을아카이브	대구 약전골목 아카이브(제안서)	과주아카이브
귀어락아카이브	풀무컬렉션	느티나무 도서관 아카이브
카라아카이브	은평 마을아카이브	대천 마을아카이브
서울 동춘동 아카이브	문래아트아카이브	화성시 시민소통아카이브
4·16 기억저장소	정릉 마을아카이브	청주동네기록관
경기도메모리	도시재생아카이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향토·개항문화자료관	리포트레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계남 마을기록관	동탄 신도시 아카이브(제안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평동
1997 위환위기 아카이브	평택시 생애사 아카이브	마포 문화비축기지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민족과 여성 역사관	
서태지아카이브	서울시장 집무실 아카이브(제안서)	
아이콧아카이브	해방촌 마을아카이브	
소리아카이브	경기북부 마을아카이브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강동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금천구 공동체경제기록관	대구 남구도시지역도큐멘타	
PNU로컬리티아카이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기록사업	
진해군항 마을아카이브	여성아카이브(제안서)	
돈의돈 박물관 마을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디지털 아카이브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마을	우리학교 역사의 벽 함께 만들기	
	반연목교육박물관	
	시흥 바라지 아카이브	
	제천 간디학교 아카이브(제안서)	
	대구 북성로 공구박물관	

체가 불분명한 사례는 별도로 운영 주체가 없다고 구분하였다. 단독 주체는 ‘민간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로 세분화하였고, 공동 주체는 단독 주체 간 협력을 기반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으로 분류하였다.

운영 주체 구분 기준 중에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소속기관인

도서관 등의 기관을 말한다. ‘경기아카이브’와 ‘성북마을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는 운영 주체가 경기도 미술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이고, 후자는 운영 주체가 성북문화재단 성북예술창작터로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운영되는 시설이기에 이와 같은 구분 기준을 설정 및 적용하였다.

총 57건의 사례 중 단독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사례는 51건으로 전체의 89.4%를 차지하였

으며, 이는 단독 주체가 공동체 아카이브 운영의 주된 형태임을 보여준다. 단독 주체 중에서는 '민간단체'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이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동 주체는 총 5건(8.8%)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협력'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된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여부에 따른 운영 주체 분석 결과, 단독 주체 가운데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사례는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 주체의 경우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가 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이라는 방안을 취하지 않아도 기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4 기록물 유형

각 사례에서 수집된 기록물의 유형 분석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어떠한 종류의 기록물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시된 기록물 유형은 '간행물', '동영상', '문서류', '시각자료', '유물류', '진사기록', '지도 및 도면', '청각자료', 'VR'의 9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기록물 유형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사례는 '유형 소개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사례에 다양한 기록물 유형이 섞여 존재하기에, 중복 분류를 적용하였다.

기록물 유형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행물'은 책, 잡지와 같이 발간한 자료이며, 단행본, 잡지, 정부간행물 등이 포함된다. '동영상'은 움직이는 영상만 포함하는 자료이며, 정지 영상이 아닌 영화나 제작 동영상 등을 재생함으로써 기록물이 움직이는 자료를 말한다. '문서류'가 서류와 같이 발간하지 않은 모든 종이 문서를

〈표 5〉 기록물 운영주체별 구분

구분	운영 주체 구분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O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X	웹 사이트	계	비율
단독	민간단체	11	7	5	23	40.4%
	공공기관	6	6	1	13	22.8%
	지방자치단체	1	4	3	8	14.0%
	개인	2	2		4	7.0%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1	1	1	3	5.3%
	계	21	20	10	51	89.4%
공동	지방자치단체 + 민간단체		4		4	7.0%
	공공기관 + 민간단체			1	1	1.8%
	계		4	1	5	8.8%
	운영 주체 없음		1		1	1.8%
	합계	21	25	11	57	100%

〈표 6〉 기록물 유형 구분

유형 구분	유형 수	비율
간행물	17	9.7%
동영상	25	14.3%
문서류	32	18.3%
시각자료	37	21.1%
유물류	30	17.1%
전사기록	3	1.7%
지도 및 도면	4	2.3%
청각자료	21	12.0%
VR	1	0.6%
유형소개없음	5	2.9%
합계	175	100%

포함한 자료이며, '카라 아카이브'에서의 공문, 회의록, 판결문 등이 포함된다.

'시각자료'는 사진, 이미지, 그림 등 시각에 의존하는 자료이며, 제보자 제공 사진이나 지도와 같은 정지 영상, 사진 등이 포함된다. '유물류'는 전통적인 유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문화, 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증명하는 모든 유형의 물리적 자료(물건)이며,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가 재개발 지역을 상징하고 기록할 만한 건축물의 일부를 기록으로 다룬 사례이기에 '유물류'로 분류하였다. '전사기록'은 인터뷰 녹취록과 같이 음성 또는 영상 기록을 문자 텍스트로 전사한 기록물이다.

'지도 및 도면'은 건축 도면, 지역의 지도 등 지리적 위치, 구조물, 설비 등의 공간적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식 형태의 기록물이다. '청각자료'는 음성파일, 구술사 인터뷰 등 청각에 의존하는 자료이다. 'VR'은 특정 사건, 장소, 사물 등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3D 기반의 입체적 콘텐츠가 구현된 디지털 기록물이며, VR을 사용한 사례는 단 한 건으로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마을 및 단체

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에 지역의 경관을 담기 위해서 VR를 통해서 영상 기록을 수집한 사례이다.

총 57건의 사례 중 '시각자료'가 3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문서류' 32건, '유물류'가 3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각자료', '문서류', '유물류'와 같이 공동체의 일상과 기억을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기록물 유형이 가장 활발하게 수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영상 및 VR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록물 유형의 수집이 나타남으로써 기록의 형태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5 기록물 수집 방법

기록물 수집 방법에 대한 분석은 각 사례에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활용된 구체적인 방식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기록물 수집 방법은 '구술인터뷰', '기록 이관', '기증', '생산 기록', '자연적 축적', '주제별 수집', '참여형 기록 수집', '수집 방법 개발'의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으며, 수집 방법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사례는 ‘수집 방법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사례에 기록물 수집 방법이 여러 개 사용된 경우가 존재하기에, 중복 분류를 적용하였다.

기록물 수집 방법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기준은 기록의 획득 방식, 선정 기준 등 수집 과정의 서로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였다.

‘구술인터뷰’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과 기억을 대화 형식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도시재생아카이브’는 지역 주민이 직접 이야기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아카이브로,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인터뷰를 진행하여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수집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기록 이관(Records Transfer)’은 기록을 생산·관리하던 기관이나 주체로부터 해당 기록의 권리 권한이 아카이브로 이전되는 행위 및 절차를 말한다. ‘우애의 아카이브’는 기존 단체 활동가들의 PC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아카이브로 이관한 사례이다.

‘기증’은 기록의 소유자가 해당 기록에 대한 법적·물리적 권리를 아카이브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수집 방법을 말한다. ‘문래아트아카이브’는 사진, 일러스트, 회화, 건축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자신들의 자료를 제공한 기증 사례이다.

‘생산 기록’은 기존에 존재하던 기록이 아니라 아카이브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진 기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새롭게 의도적으로 생산된 형태의 기록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기록관 운영자인 사진 작가가 찍은 정미소의 시설과 농촌 주민의 삶

과 관련된 사진을 생산하여 전시한 ‘계남 마을 기록관’ 사례가 있다.

‘자연적 축적’은 의도적인 수집 행위 전에 이미 축적된 기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정한 수집 활동 없이 일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유지된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느티나무도서관 아카이브’는 당시 느티나무도서관에 자연스럽게 보관된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된 사례이다.

‘주제별 수집’은 특정 주제나 사건과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으로, 수집 대상 기록의 선정 기준에 초점을 둔 기준. 기록을 ‘어떻게’ 획득하는지보다는 ‘무엇을’ 수집할지로 기록의 내용적/주제적 기준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다. ‘성미산 마을아카이브’는 성미산 마을에 관한 기록물이 너무 방대하기에 성미산 마을 지키기 운동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관련된 기록물 중심으로 수집한 사례에 해당한다.

‘참여형 기록 수집’은 기록 수집 과정에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 주요한 주체나 참여자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참여 활동 등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에 초점을 둔다.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남구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남구 주민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남구의 기록을 수집한 사례로 ‘대구 남구도시도큐멘타’가 포함된다.

‘수집 방법 개발’은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나 절차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으로, 기존 수집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방법이다. ‘쿼터락아카이브’는 국외 성적소수자 아카이브의 수집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수집 정

〈표 7〉 기록물 수집 방법 구분

수집 방법 구분	사용된 수집 방법 수	비율
구술인터뷰	15	18.1%
기록 이관	2	2.4%
기증	11	13.3%
생산 기록	8	9.6%
자연적 축적	3	3.6%
주제별 수집	24	28.9%
참여형 기록 수집	8	9.6%
수집 방법 개발	2	2.4%
수집 방법 없음	10	12.0%
합계	83	100%

책을 구성한 사례로, 이를 통해 기록물 수집의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총 57건의 사례 중 '주제별 수집'이 24건으로 전체의 28.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술인터뷰' 15건(18.1%), '기증' 11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특정 주제에 따라 기록물을 수집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6 기록물 레코드 구축 방법

레코드 구축 방법에 대한 분석은 각 사례에서 기록물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구성하거나 등록할 때 사용한 방식과 절차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구축 방법은 크게 단일 방법과 혼합 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사례는 '구축 방법 제시 없음'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단일 구축 방법은 '내러티브 방식', '다학제적 접근 방식', '사업형', '시민 참여형', '주제 중심 방식'로 세분화하였고, 혼합 구축 방법은 두 가지 단일 방법이 결합된 형태로, '시민 참여형과 사업형의 혼합', '내러티브 방식과 주

제 중심 방식의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닌 기록물이 지닌 배경과 맥락을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여 아카이브에 구축하는 방식이다. '폴무 컬렉션'은 사진 속 이야기 맥락이나 흐름에 따라 시리즈를 구성하고, 이에 맞는 사진을 선별하여 내러티브 기술로 구성된 사례에 해당한다.

'다학제적 접근 방식'은 여러 학문 분야의 지식과 방법론을 통합하여, 다양한 시각과 분석 방법을 통해 보다 풍부한 기록을 생성하는 구축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생활사 아카이브'가 다양한 학문 또는 주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 생활문화를 대표할 지역을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할 연구팀을 구성한 사례로 이 방식에 해당한다.

'사업형'은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목표와 계획에 필요한 기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로는 경기도의 기억과 기록을 모아 서비스하고자 경기도민 대상 기록 수집 프로젝트 '경기도민 e-추억상자'를 추진한 사례인 경기도 메모리를 들 수 있다.

〈표 8〉 레코드 구축 방법별 사례 구분

구분	구축 방법	사례 수	비율
단일	내러티브 방식	1	1.8%
	다학제적 접근 방식	1	1.8%
	사업형	9	15.8%
	시민 참여형	7	12.3%
	주제 중심 방식	1	1.8%
	합계	18	33.5%
혼합	시민 참여형 + 사업형	3	5.3%
	내러티브 기술 + 주제 중심 기술	1	1.8%
	합계	4	7.1%
구축 방법 제시 없음		34	59.6%
총 합계		57	100%

‘시민 참여형’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레코드 구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동체의 능동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명동은 기독교인 연대가 함께 시작한 국내외 모금 활동을 바탕으로 ‘명동’ 플랫폼이 개설되었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레코드가 구축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주제 중심 방식’은 특정 주제나 문제에 관련된 기록물들을 주제별로 구성하고, 그 의미와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내용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여기에는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디지털 아카이브’가 속하며, 이는 북부 교육의 역사를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교의 역사와 교육 발전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컬렉션 구성과 전시 콘텐츠를 개발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 기준을 통해 분석한 결과, 레코드 구축 방법별 사례 수는 구축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34건(59.6%)으로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단일 방법을 활용한 사례 중

서는 ‘사업형’이 9건(15.8%)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 참여형’이 7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복합 방법을 사용한 사례 중에서는 ‘시민 참여형과 사업형의 혼합’이 3건(5.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 참여형 방식이 단독 또는 혼합 형태로 비교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7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는 이용자가 찾는 기록을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잠재적 이용자에게 소장기록과 보존기록관을 알리는 포괄적인 활동을 말하며(백지원, 오효정, 2024), 보존된 기록에 대한 검색과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검색과 접근성 측면에서 기록정보서비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표 5〉에서처럼 실제 디지털 아카이브로 운영되는 사례는 21건뿐이기에,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논문에서만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접근점을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와 큐레이션 서비스로 분

류하여 살펴보았다.

오프라인에서 검색은 서고에 있는 기록의 위치를 알아내고,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과정이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기록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즉, 검색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아내고,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검색도구를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설문원, 2010). 여기에는 키워드 검색, 필터링 검색, 디렉토리 검색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능들을 모두 포괄하여 검색서비스로 보았다.

사례 중에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는 게시글의 유형에 따라 분류체계를 지원하며 주제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메모리 사례의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 정보의 통합검색 및 검색 결과의 필터링을 제공함으로써 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있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박물관 및 갤러리에서 유래된 큐레이션 개념을 기록에 적용한 것이다. 큐레이션은 ‘작품에 생기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불리며, 특정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록물을 선별하고, 조직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활동을 의미한다(이상현, 2020). 기록학계에서도 이러한 큐레이션 개념을 기록물에 적

용하여,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록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기록물 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설문원, 2008).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묶은 기록물들 즉, 컬렉션을 보여주는 전시와 가이드 등의 활동을 모두 큐레이션 서비스에 포함하였다.

사례 중에서 풀무컬렉션의 경우에는 풀무벼, 풀무애완동물, 풀무의 공생공략, 풀무학생의 꿈, 풀무정원, 풀무기숙사, 풀무한해와 같이 8가지 주제에 따라 큐레이션된 8개의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리포트래시 사례는 웹 사이트의 시작페이지에 가장 많은 제보를 받은 기사, 기자 및 언론사를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순위를 매겨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기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57건의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검색서비스는 49건(86.0%)의 사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압도적 낮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큐레이션 서비스는 47건의 사례에서 활발하게 구현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전시, 컬렉션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기록정보 서비스로 검색서비스보다는 기록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에 더욱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사례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구분	검색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8(14.0%)	47(82.5%)
미제공	49(86.0%)	10(17.5%)
합계	57(100%)	57(100%)

##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실제 사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행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 특성과 연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의 현재 인식 수준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동체 아카이브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여겨지는 '기억 보존'과 '정체성' 형성이 실제 사례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동체의 소중한 기억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체성' 또한 사례 정의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여,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사회적 가치'는 실제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의에서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기억', '인권 보호', '액티비즘' 등 공동체 아카이브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실제 운영에서는 '기억 보존'과 '정체성' 측면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는 아카이브 구축 방법에서는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아카이브의 '정의'를 제시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축 방법의 분석 결과에서 '시민 참여형' 방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구술 인터뷰, 생산 기록, 참여형 기록 수집 등 공동체 구성원의 직접적인 활동을 반영한 수집 방법들은 공동체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기록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참여'라는 핵심 특성이 수집 방법론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의 분석 결과에서 '시민 참여' 가치의 비중이 낮아, 참여가 운영 방식으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더라도 아카이브의 가치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은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카이브 정의 표방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대상 사례의 상당수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며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디지털 아카이브 내에서 자신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아카이브의 목적, 가치, 지향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접근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의 가치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용' 양상이 기록정보서비스 중 큐레이션 중심으로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큐레이션은 아카이브 운영 주체가 기록을 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억 보존 및 정체성 형성 과정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기록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기록의 '활용'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 및 가치를 확산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기록물 수집 유형은 시각자료, 문서류, 유물류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기록물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흔히 접하거나 생산되는 기록 유형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반영한다. 주목할 점이 이 외에도 VR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방법도 도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거나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구축 관점에서는 '기억 보존'과 '정체성 형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도 실질적인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검색 서비스 강화와 큐레이션과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아카이브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활용성 제고 관점에서는 온라인 에서 공동체 아카

이브의 특성과 가치를 명확히 소통하고, 보존된 기록의 '활용'을 통해 자신들의 역사 및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 관점에서는 전통적 기록물 외 구술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수집 및 활용 방법론과 시민 참여를 통한 아카이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과 내용적 특성을 유형화하는 방식을 통해 현황 및 특성을 도출한 방법은 학술적으로 처음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초기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향후 보다 폭넓은 범위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의 공동체 아카이브 가운데 일부 사례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체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며,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사례를 포함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동희 (2023). 협력적 거버넌스의 메타 거버넌스: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우희 (2020). 지역공동체아카이브의 기록정보콘텐츠 운영과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 김은지 (2018). 페미니즘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 아카이브의 의미와 설립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 김조은 (2020). 시민사회단체에서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것: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 사례. 한국

- 기록관리학회 학술지, 20(1), 207-212.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207>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
- 박진경, 김유승 (2017). 사회적 기억을 위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이해관계자 면담 연구. 기록학연구, 54(54), 249-287. <http://dx.doi.org/10.20923/kjas.2017.54.249>
- 배현숙 (2018). 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공동체와 도서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 백지원, 오효정 (2024). 고령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방안: 디지털 포용 관점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4), 67-92. <http://dx.doi.org/10.14404/JKSARM.2024.24.4.067>
- 서우석, 김민재 (2021).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로서 아카이브 예술의 가능성 탐색 연구: 경기아카이브 전시와 성북도큐멘타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60(1), 5-35. <http://dx.doi.org/10.52564/JAMP.2021.60.5>
- 석효봉 (2015). TV 예능프로그램에 나타난 외국인 얼굴성에 대한 인식 연구: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준 얼굴'과 소수자 사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3호, 11-19.
- 설문원 (2010). 기록 검색도구의 발전과 전망. 기록학연구, 23, 3-43.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설문원, 김영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209-251. <https://doi.org/10.20923/kjas.2016.48.210>
-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80-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양인호 (2023).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89-113.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3.089>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개정판). 서울: 박영스토리.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03>
- 이상현 (2020). 공공데이터 기록관리 활성화와 큐레이션 활용방안 연구: 공공데이터포털, 헤안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1, 115-153. <http://dx.doi.org/10.23035/kaics.2020.1.11.115>
- 이연옥, 박병현, 장덕현 (201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2), 33-69. <http://dx.doi.org/10.22772/pnujws.22.2.201206.33>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221-254.  
<https://doi.org/10.20923/kjas.2008.18.221>
- 이정연, 최효진 (2020).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지역학 아카이브 모델 연구-제주학아카이브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10, 83-148.  
<http://dx.doi.org/10.23035/kaics.2020.1.10.083>
- 조영삼 (2016). 공동체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2016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3-121.
- 주용국 (2016).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 모형 탐색과 적용: 부산 동구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0, 105-133. <https://doi.org/10.21582/TJH.2016.02.40.105>
- 최윤진 (2011).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2024). 기록관리의 세계-이론에서 실천까지. 파주: 한올아카데미.
- 한국기록학회 편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경기: 역사비평사.
- 현문수 (2013).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27-150.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27>
- Creswell, J. W. & Creswell, J. D. (2018).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5th ed.). 정종진, 김영숙, 류성림, 박관우, 성용구, 성장환, 유승희, 임남숙, 임청환, 장운선, 허재복 (2022). 연구방법: 질적·양적 및 혼합적 연구의 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Hyun-sook (2018).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Community Archives: Focused on Partnership of Community and Library.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 Baek, Ji Won & Oh, Hyo Jung (2024). A study o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for the elderly: focusing on digital inclus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4), 67-92. <http://dx.doi.org/10.14404/JKSARM.2024.24.4.067>
- Choi, Yoon Jin (2011). A Study on Archiving of Sungmisan Community.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Hyun, Moon Soo (2013). A study on sharing descriptiv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net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27-150.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27>
- Joo, Yong Kook (2016).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model of local community archives: the

- case of Sanbokdoro Archives in Dong-gu, Busan C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40, 105-133. <https://doi.org/10.21582/TJH.2016.02.40.105>
- Kim, Dong Hee (2023). *Meta-Governanc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Eun Ji (2018). *A Study on the Meaning and Establishment of the Women's Archives from a Viewpoint of Feminism*. Master's thesis, Hanshin University.
- Kim, Hwa Kyo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2.143>
- Kim, Jo Eun (2020). Building the archives in a civil society: 'The archives of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1), 207-212.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207>
- Kim, Woo Hee (2020). *Operation and Utilization Plan for Archival Contents in Local Community Archiv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024).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heories and Practices*. Paju: Hanul Academy.
- Lee, Jung Yeon & Choi, Hyo Jin (2020). A study on area studies model for locality documentation: a case with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of Jeju studies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0, 83-148. <http://dx.doi.org/10.23035/kaics.2020.1.10.083>
- Lee, Sang Hyuen (2020).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public data record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of curation: focusing on Public Data Portal, Hyeon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Information and Cultural Studies*, 11, 115-153. <http://dx.doi.org/10.23035/kaics.2020.1.11.115>
- Lee, Yeon Ok, Park, Byung Hyun, & Chang, Durk Hyun (2012). Media perception of immigrant women in newspaper editorials.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22(2), 33-69. <http://dx.doi.org/10.22772/pnujws.22.2.201206.33>
- Lee, Young Nam (2008). Essay on the Community Archp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221-254. <https://doi.org/10.20923/kjas.2008.18.221>
- Park, Jin Kyung & Kim, You Seung (2017). The stakeholder interview of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social memor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4(54), 249-287.

<http://dx.doi.org/10.20923/kjas.2017.54.249>

- Seo, U Seok & Kim, Min Jae (2021). An exploration of the possibilities for archival art as local community archive: Gyeonggi Archive exhibition and Seongbuk Documenta exhibition.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60(1), 5-35.  
<http://dx.doi.org/10.52564/JAMP.2021.60.5>
- Seok, Hyo Bung (2015). A Study of Perception on the Foreigner's Faciality in TV Entertainment Program: Focusing on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s Thoughts of 'Standard Face' and Minorit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Seol, Moon Won & Kim, Young (2016). Revisiting archical appraisal theories for their application to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8, 209-251.  
<https://doi.org/10.20923/kjas.2016.48.210>
- Seol, Moon Won (2010). A study on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archival finding ai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3-43.
- Seol, Moon 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4. <https://doi.org/10.20923/kjas.2012.32.003>
- Sohn, Dong You (2020). A study on the meaning and tasks of vitalizing private archives: Focused on maeul-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5, 80-108.  
<https://doi.org/10.20923/kjas.2020.65.089>
- Yang, In Ho (2023). A study on the redesign method of presidential record management through presidential record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3(3), 89-113. <https://doi.org/10.14404/JKSARM.2023.23.3.089>
- Yoo Kiwoong, Jeong, Jongwon, Kim, Youngseok, & Kim, Hanbyeol (201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revised)*. Seoul: Pakyoungstory.
- Youn, Eun 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3-37. <https://doi.org/10.20923/kjas.2012.33.003>
- Zoh, Young Sam (2016).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revitalizing community archives. *Proceedings of the 2016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3-121.

